

# ‘제주의 아름다움 삶의 소중함 깨달아’

김윤수 '제주를 품다' 개인전

인간 등의 가치 탐구

캔버스 속에 녹여내

세라믹작품 25점 선보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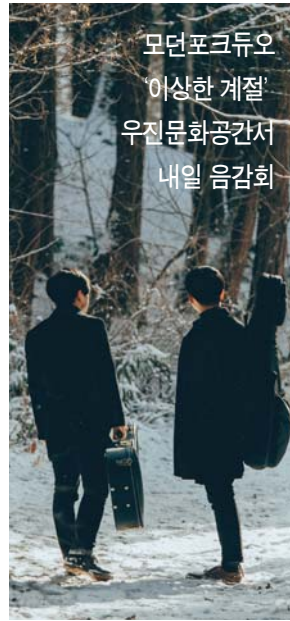
제주의 자연 푸른색으로

김윤수 작가는 지난해 제주도에서의 연구 수 활동으로 제주와 인연이 닿았다. 돌섬들과 바람, 거센 파도 등 작가의 눈에 비친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은 삶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했다고 한다. 그는 고유한 모습을 간직한 제주에서 영감을 얻어 인간과 자연, 기억과 시간, 삶과 죽음

등의 가치를 탐구해 작품에 녹여냈다. '제주를 품다' 전을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선 세라믹작품 25점을 선보인다. 작품 속 풍경은 섬이지만 다층적인 은유의 대상으로 묘사된다. 작가는 야성적이면서도 순수한 자연을 간직한 제주의 자연을 푸른색의 절제된 색으로 담아낸다. 작품은 과감한 선과 거친 터치 그리고 동양화와 같은 색의 표현으로 도예작품에선 드문 회화적 감성을 보여준다. 김 작가는 "진지한 풍경과 잔잔하고 고독한 감성의 풍경들은 무거우면서도 가벼운 울림을 주며, 현대인들의 지친 감성을 회복시켜주는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작가는 원광대 응용미술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 및 한양대학원 응용미술학과 박사과



정을 밟았다. 2008년 건축용 테라코타 입체 타일 특유를 출원했다. 군산대학교 예술대학장, 중국 길림예술대학 객좌교수, 단국대 도예학과 국내 파견 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운영위원 및 심사위원장,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심사위원장 등 다양한 활동을 가졌다. 현재 군산대학교 예술대학 세라믹디자인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시는 5일까지. /정해은 기자



## ‘겨울·봄에 걸친 이야기’

환절기의 특별한 느낌을 담은 모던포크듀오 이상한 계절의 김은총·박경재. 이들은 그들 결성기 시점이 환절기라는 데 착안해 '이상한 계절'이란 팀명을 쓴다. 이는 '이상을 향한 계절'의 줄임말로, '보편의 정서 속에 우리만의 특별한 계절을 꿈꾸자'는 이상이 담겨 있다. 이들은 2014년 발매한 첫 EP(미니앨범)는 봄을 시작으로 2장의 EP와 다섯 번의 싱글을 발매했으며, tvN아홉수소년, SBS 롬멜이스트 등의 BGM 작업에 참여하며 주목을 받았다. 또한 최근에는 '전주에 가면'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 이상한 계절이 3일 오후 7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음감회를 갖는다. 이번 공연은 세번째 EP '겨울'의 발매를 기념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레드콘 음악창작소가 제작지원 한다. 공연은 '환절기'를 주제로, 겨울과 봄에 걸친 계절의 다양한 이야기와 색깔을 음악에 실어낸다. 음감회와 콘서트로 구성된 공연은 EP의 '겨울' 곡부터 봄을 향한 이상한계절의 기존 곡까지 선보일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최경성 연출가 성추행 사태에

## 전북연극협회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긴급 이사회서 영구 제명 극단 명태, 준단체로 강등

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가 최근 불거진 최경성 연출가(전 극단 명태 대표)의 성추행 사태와 관련, “홀로 힘들었을 피해자에게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는 내용이 담긴 입장문을 발표했다. 전북연극협회 측은 입장문에서 “저희들의 잘못에 대한 성찰을 시작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자 공개적인 사과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협회는 “피해자 곁에 서지 못한 저희들의 부족함이 피해자를 더 아프게 했을 거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며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줄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다하려 한다며 더 이상 이런 선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지난달 2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최 전 대표를 영구 제명하고, 전북연극협회 회원단체 어디에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최 전 대표가 대표로 있는 (사)공연문화발전소 명태에 대한 법인 승인 취소를 전라북도에 요청할 예정이며, 극단 명태에 대한 선도의적인 책임을 물어 정단체에서 준단체로 강등시켰다. /정해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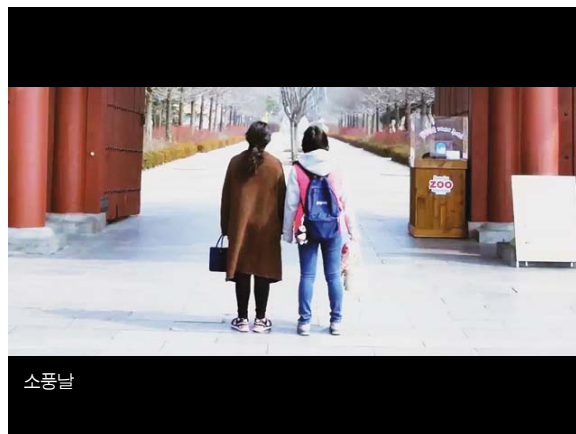
국립민속국악원,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 수강생 모집

국립민속국악원은 국악의 생활화와 건전한 여가문화 형성을 위하여 만18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인 국악강좌 ‘청출어람’을 개설하고 수강생을 모집한다. 각 과정별로 초급과정은 6개 강좌(대금,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 장구장단), 중급과정은 5개 강좌(대금, 해금, 판소리, 한국무용, 가야금병창)가 개설된다. 이번 강좌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되며, 초급과정은 매주 화요일, 중급과정은 매주 목요일 오후 7시~9시에 진행된다. 초급과정은 강습의 효율성을 위하여 중급과정과 같이 장기

과정으로 운영된다. 마지막 차시에는 무대에서 한 해 동안 배웠던 것을 선보이는 발표회도 갖는다. 수강신청은 3월 6일부터 9일까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또는 전화(063-620-2319), 국립민속국악원 누리집(namwon.gugak.go.kr)에서 할 수 있다. 수강료는 12만원. 접수신청이 정원을 초과한 과목의 경우 3월 13일 전자식 자동추첨을 통하여 수강생을 선정한다. 결과는 누리집 게시 또는 개별문자발송을 통해 이루어진다. /정해은 기자



커튼콜



소풍날

## ‘메이드 인 전주’ 이달 상영작 선정

전정처 감독 '커튼콜' 김유라 감독 '소풍날'

전주영화제작소 후반제작 지원사업의 선정작 또는 지역 영화인들의 작품을 상영하는 'Made in Jeonju' 3월에서는 전정처 감독의 '커튼콜'과 김유라 감독의 '소풍날'을 만날 수 있다. 2015년도 후반제작 지원작품인 '커튼콜'은 4년째 독립영화를 찍지만 매번 영화제에 떨어지고 있는 어느 영화제작모임이 새로운 영화를 찍으면서 겪는 우여곡절을 그리고 있다. 또 한편의 영화 '소풍날'은 2016년도 상반기

커튼콜-매번 영화제 떨어지고 있는 영화제작모임이 겪는 우여곡절 다뤄

소풍날-뜬금없이 소풍떠나는 것에 의아해 하는 엄마와 딸의 이야기

후반제작 지원작품으로, 추운 겨울날 뜬금없이 소풍을 떠나는 것에 의아해 하는 엄마와 그녀의 딸에 대한 소박한 에피소드를 담았다. 영화는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에서 3일, 10일, 17일, 24일, 31일 매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연속 상영한다. 각 회차 1시간 전부터 티켓박스에서 선착순(1인 1매)으로 좌석 지정을 받은 후 상영 시작 15분 전부터 입장 가능하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 하나 백두대간 달리다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호랑이 라이더를 타고 백두대간의 자연을 흥미롭게 느낄 수 있는 코너

### 둘 백두대간 산간마을

백두대간 7권역의 삶의 모습과 주요마을들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담아 현대인들의 메마른 정서에 추억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코너

### 셋 노치와 범이

남원시 주천면 노치마을 당산제를 모티브로 노치소년과 백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흥미롭게 묘사한 360도 서클영상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전라북도 남원시 운봉로 151  
남원시 산림과 백두생태 063-620-6944  
백두대간생태교육장 전시관 063-620-5751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트리하우스 063-620-5754

